

천재들의 삶... 그 궤적 따라가 보니



〈황 현〉

‘우리 역사 속의 천재들’

신정일 지음

이러한 기준에 따라 책은 후백제시대의 견훤(867~936년)부터 근현대의 한용운(1879~1944년)까지 9명의 천재(위인)를 3부로 나눠 살펴본다.

1부 ‘변혁의 열망 세상을 뒤흔들다’에서는 뛰어난 능력과 안목을 갖춘 영웅이었지만 끝내 패자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견훤, 중국까지 명성을 떨친 최고의 시인이었으나 묘청의 난에 휘말려 스러져간 정지상(?~1135년), 걸출한 혁명의 뜻을 펴지 못하고 요승의 이미지로 기록되고 만 신돈(?~1371년)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정제된 시대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고자 했으나 열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꺾여나가야만 했던 천재들의 비극적인 일생을 엿볼 수 있다.

2부에서는 이규보(1168~1241년), 이이(1536~1584년), 정철(1536~1593년) 등 드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룬 천재들을 다뤘다.

문장으로써 이름을 세상에 떨치고 관리로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른 명문장가 이규보, 조선만의 성리학을 정립하고 이후 셀 수 없는 후학들의



〈한용운〉



〈이이〉

길을 이끌어준 대학자 이이, 정치적인 악명 너머로 수많은 시가와 당대 최고의 가사문학작품을 남긴 정철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다.

다채로운 욕망과 이해득실이 뒤얽힌 정계에서도 자신의 뜻을 지켜내며 드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룬 천재들의 위대한 일생을 만날 수 있다.

‘불멸의 글 세상을 아우르다’라는 제목의 3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고고하게 살아간 천재 문사 김시습(1435~1493년), 조선의 선비로서 당대 정황을 세세히 기술하고 멸망하는 나라와 운명을 함께한 매천 황현(1885~1910년), 나라의 독립과 화석화한 불교의 혁신을 꿈꾸는 한편으로 누구보다도 깊고 진실한 시를 남긴 민족시인 한용운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권력으로부터 한걸음 떨어진 장소에서 나랏일을 살피고 격정하며 글과 노래에 세상을 담은 천재들의 초연한 일생을 다 거다.

현장을 중요시하는 사회자인 만큼 철저한 고증과 현장답사는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신뢰를 갖게 하고 생생한 감동을 전한다. 역사기행서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의나무·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그녀가 들려주는 책이야기... 그리고 음악

‘사랑하다, 책을 펼쳐 놓고 읽다’

헤아람 지음



부산의 청소년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은 이제는 인문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인디고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일은 기적처럼 보인다. 영문으로 인문학 잡지를 만들고,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필자를 찾아 전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 그들과 함께 유스북페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디고 서원을 이끌고 있는 아랍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헤아람씨다. 그녀가 책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사랑하다, 책을 펼쳐 놓고 읽다’를 펴냈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부산 MBC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매주 진행한 ‘헤아람의 꿈꾸는 책방’의 내용을 글로 옮긴 것이다.

그녀는 매주 조금 조금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에 어울리는 책을 소개하고, 매번 주제에 맞는 작품을 직접 낭송한다.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에 맞게 매주 어울리는 노래 한두곡을 추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리스인 조르바’ ‘기후변화의 정치학’ ‘다시 민주주의를 말하다’ 등 문학, 철학, 정치, 사회학, 과학, 예술, 교육을 아우르는, 그녀가 소개한 책은 300여권에 달하고 500페이지에 이르는 책의 말미에는 앞부분에서 언급된 책과 노래들을 따로 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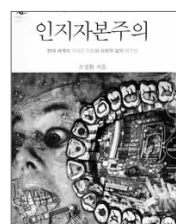
〈공리·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자본주의 문제점과 해법, 인지에서 찾아라

‘인지자본주의’

조정환 지음



실업, 가난, 물가상승, 양극화 등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시점에 자본주의의 위기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책 ‘인지자본주의’가 나왔다.

정치철학자 조정환씨는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해법을 ‘인지’(認知)에서 찾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인지자본주의’(cognitive capitalism)는 14~17세기의 상업자본주의, 이후 20세기 후반까지의 산업자본주의에 이은 제3기 자본주의로, 인지노동의 착취를 주요한 특징으로 삼는 자본주의다. 즉 노동자의 신체뿐 아니라 사교술, 정서적인 교감능력, 지능, 언어능력, 소통능력 등 다양한 인지적 능력을 착취한다는 것이다.

책은 인지의 개념과 인지자본주의의 이행 과정을 분석하고, 공간과 시간, 계급, 지식, 정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지자본주의의 위기를 살펴본다.

저자는 최근 일본 대지진에 이은 방사능 위기와 북아프리카·중동의 연쇄 혁명을 인지자본주의의 통제불능 상태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인지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도 ‘인지’라는 키워드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인지의 자본주의적 사용이 궁지에 몰린 지금이야말로 인지와 인지기능의 진정한 혁명이 필요하다. 축적을 위한 인지의 전용이 아니라 삶의 혁신과 행복을 위한 인지 혁명이 필요한 때다”고 주장한다.

〈갈무리·2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3년 한국, 세상의 기세가 넘어온다

사랑하는 사람을 추억합니다

‘석문사상’

석문도문 지음



이치에 따르면 2013년 동양, 그 중에서도 한국으로 세상의 기세가 넘어오기 시작한다는 것. 책은 이러한 흐름에서 일어나는 한국의 운명을 남북통일의 시나리오와 함께 입체적으로 예측한다.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설명한 난해한 초반부에도 불구하고 미래예측 부분들은 기존 예언서와는 달리 대단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명쾌하게 표현했다. <석문출판사·5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당신의 모든 순간 1~4’

강 폴 지음



지독한 사람이야. 인기 만화가 강폴이 내놓은 네 번째 순정만화 시리즈 ‘당신의 모든 순간’ 1~4권은 사랑하는 사람을 추억하는 슬픈 이야기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먼저 연재되며 하루 평균 200만 명의 독자를 사로잡았다.

만화는 사람들의 뇌가 녹아내려 좀 비가 되는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간 2012년 서울이 배경. 낡고 오래된 푸공아파트를 배경으로 주위 사람

들이 모두 좀비로 변한 가운데 홀로 살아남은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좀비가 된 사람들은 무섭지 않다. 좀비들은 마지막 순간의 기억을 찾아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

아이를 찾는 엄마,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려는 남자 등 모습만 좀비이지 사람의 사랑을 잊지 않은 존재들이 다. <재미주의·각권 1만2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림 최고 낙찰가 10위중 절반은 인상과... 왜?

‘인상과 그림은 왜 비쌀까’

필립 후크 지음



죽은 지 100년이 지난 1990년 5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가세박사의 초상’이 무려 8250만달러(약 950억원)에 낙찰됐다. 중동 부호들의 거실에는 예의 없이 인상과 그림이 걸려 있고,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그림 순위 10위 중 절반 이상은 인상과 차지하고 있다.

마네, 모네, 르누아르, 반 고흐, 고갱, 인상파는 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로써 비쌀까. 신간 ‘인상과 그림은 왜 비쌀까’에 그 해답이 있다.

지난 30여년간 영향력 있는 아트딜러로 고가의 인상과 작품들을 사고파는 일을 해온 저자 필립 후크는 “인상과 회화의 인기는 미술을 상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인상파는 1880년대 중반 상승 기류를 탄 경제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미국의 엘리트들이 인상과 작품을 받아들이고, 각국의 미술관들이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또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에서 인상과 작품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 아트 딜러와 경매인들 덕분에 가격이 치솟았다.

책에서는 소더비와 크리스티에서 활약했던 세기의 경매인들과 화가, 비평가, 컬렉터, 큐레이터, 갤러리, 거부들의 이야기를 생생한 현장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현암사·1만8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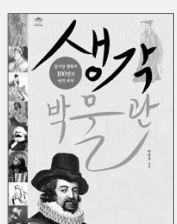
신간

▲꺼져라, 비둘기=현대인의 불안과 고독, 욕망을 추적해온 중견 소설가 김도연(39)씨의 새 장편소설. 선악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사적 견해라는 부제로 웹진 ‘나비’에 먼저 소개됐다. 선과 악의 보편적 견해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이를 인간의지의 산물로서가 아니라 의식화되고 주입된 관념으로 읽고, 재검토 또 새롭게 독특한 형식으로 그렸다. <문학과지성사·1만1000원〉

▲생각 박물관=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 실록 등 대중역사서를 선보여온 박영규씨가 동서양 철학자 100인의 사상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중국의 노자와 이오니아의 탈레스, 아테네의 소크라테스 등 고대 철학자부터 20세기 하이데거, 사르트르에 이르기까지 동서양 철학의 흐름을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BM책문·2만5000원〉

▲김제동이 만나러 갑니다=방송인 김제동이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경향신문’에 연재한 인터뷰 ‘김제동의 톡톡톡’을 모아 엮었다. 박원순 변호사,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홍명보 올림픽축구대표팀 감독, 배우 황정민 등 우리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25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김제동의 풍자와 재치있는 코멘트가 더해졌다. <위즈덤경제·1만3000원〉

▲스님은 사춘기=서울 봉은사 주지를 역임한 명진 스님이 손에 세이. 6살 때 어머니를 여읜 이야기부터 출가 후 수행 이야기, 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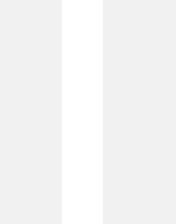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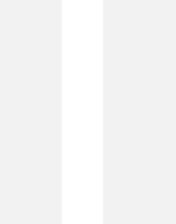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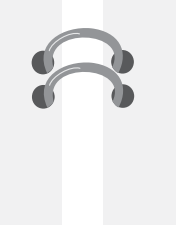


화 운동 등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봉은사 주지 재임시 추진했던 사찰 재정 공개와 1천원 기도에 대한 뒷이야기와 소회도 들려준다. <이슬·1만3000원〉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 명강의=국내에서도 TV로 방영됐던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 내용을 잘 의응답을 포함해 그대로 옮겼다. 철학의 핵심 개념부터 샌델 교수 특유의 문답 강의법을 읽을 수 있다. 강의 내용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과 비유 있는 철학자에 대한 상세한 주석도 붙여 있다. <김영사·1만5000원〉

▲신학의 스캔들, 스캔들의 신학=그리스어로 걸림돌을 뜻하는 ‘스캔들’은 부정적인 뜻이지만, 예수와 연결될 때만큼은 걸림돌을 인식하고 넘어선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쓰였다. 차정식 한일장신대교수가 고상한 가치마저 스캔들로 만드는 현실과 부정적인 것들을 바로잡는 예수의 스캔들을 견뎌보며, 이 시대 신학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동원·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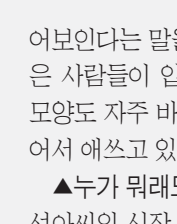
▲친구와 그 옆 사람=중견 여성 작가 이남희의 다섯 번째 소설 집. 표제작인 중편은 1990년을 배경으로 삼았다. 1980년대를 지배했던 이념적 열망을 상실한 무렵을 배경으로,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상실감에 허덕이는 이들이 등장한다. <실천문학사·1만1000원〉



▲아기마중=작가 박원서의 유작 그림책.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설렘과 사랑을 따스한 시선으로 그렸다. 간결하면서도 꾸밈없는 문장과 문자가 느껴지는 그림이 만났다. ‘생명’에 대한 예찬을 담은 가족세이로 아기 마음에 나서는 가족의 행복할 일상이 훈훈하게 펼쳐진다. <한울림·1만3000원〉

▲내 친구 제인=동물 행동학자이자 환경 운동가인 제인 구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았다. 제인 구달은 처음 어디서 꿈을 찾았을까, 또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그녀의 엄마·아빠가 제인 구달에게 선물한 침팬지 인형 주빌리의 목소리로 제인의 어린 적 이야기를 감동적이고 섬세하게 들려준다. <웅진주니어·1만원〉

▲그대를 그리는 아이=따뜻한 세상을 노래하는 중견 동화작가 윤수현씨의 신작. 표제작 ‘그대를 그리는 아이’ 등 꿈, 희망, 용기, 이웃 사랑을 전하는 단편 4편을 모았다. 목발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희이, ‘대한민국’을



‘다항민국’이라고 응원하는 재력이, 고래만 그리는 뇌성 마비 장애인 음식이, 귀가 아무도 할아버지 등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한다. <시공주니어·9000원〉

▲앤서니 브라운의 아기가 된 아빠=세계적인 명성의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이 들려주는 아주 특별한 아빠 이야기이다. 존의 아빠는 나이보다 젊어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존의 아빠는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많을 뿐 아니라, 머리 모양도 자주 바꾸는 등 언제나 젊게 보이고 싶어 애쓰고 있다. <살림어린이·1만원〉

▲누가 뭐래도 우리언니=아동문학 작가 이성이씨의 신작.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생의 행복을 위해 떠날 수 밖에 없는 소녀가장 해리와 그런 언니를 바라보는 동생 수미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다. 자매는 방향을 극복하고 상처를 이겨내면서 더 크게 성장한다. 진한 형제애와 새로운 형태의 가족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한다. <한림출판사·9500원〉

어린이 책꽂이